

고품질 · 고객 신뢰 통해 그라비아 제판산업 선도

표준화된 제품 생산 박차, 발전 거듭할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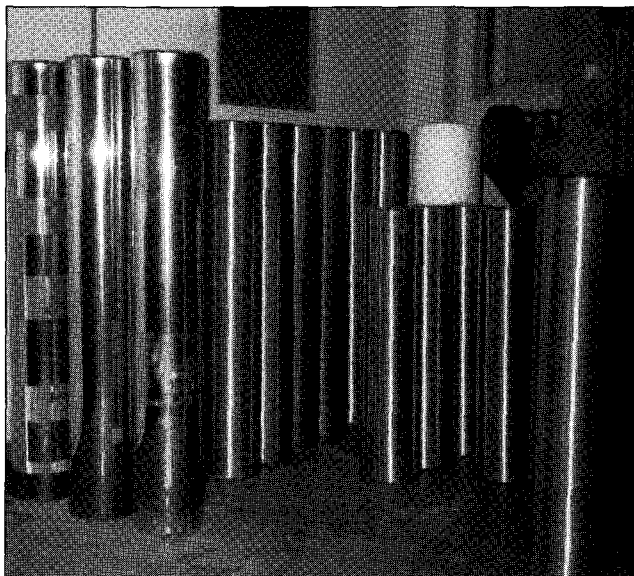
남 성 일
(주)대일산업 대표이사

첨단화, 디지털화 되어 가는 시대 속에서 포장산업 역시 양적, 질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이런 흐름속에서 포장산업 중 여느 분야나 마찬가지로 지만 포장 인쇄 디자인과 그라비아 제판산업은 시대 조류에 맞춰 고품질 · 고성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해, 최신 레이저 제판설비를 도입함으로써 업그레이드 된 포장인쇄 디자인과 그라비아 제판 서비스 제공에 나선 국내 제판산업의 선두기업 (주)대일산업(대표이사 남성일)을 찾았다.

지난 1980년 현재의 (주)대일산업 남정락 회장이 경기도 안산에 대일산업사를 설립, 85년 전자동 부식제판시설



▲ 대일산업 생산제품



▲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주)대일산업 전경

‘부메랑’을 도입하면서 (주)대일산업은 국내 제판산업의 발전을 이끌게 된다.

(주)대일산업은 90년대 들어 전자조각 제판시설인 ‘헤리오’ 조각기를 도입하고 “부메랑” 3호기, 자동 연마기, 출력기, 교정기를 설치하는 등 최상의 제품 생산을 위해 생산설비에 과감하게 투자함으로써 업계 독보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게 됐다.

(주)대일산업의 고품질 제품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고객신뢰는 94년 전국품질경영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라비아 제판산업 최초의 filmless 가동을 실천하고 ISO 9001 및 IQ NET 인증을 획득하는 등 국내 그라비아 제판산업의 양적·질적 발전에 일조했다.

(주)대일산업은 2000년 9월, 창립 20주년을 맞아 남성일 대표이사의 취임을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모색하게 된다.

남 사장의 취임 이후, 2002년 (주)대일산업은 한국인 체형과 국내 그라비아 제판산업을 고려해 0.01mm의 오차없이 실린더 표면을 연마할 수 있는 최초의 한국형 자동제어 연마기를 자체 개발했으며 그라비아 인쇄의 고급화 추세에

부응해 정밀교정이 가능한 교정기(Gravo-Proof GN1500)를 도입, 발전을 추구했다.

금융계에 몸담았던 치밀한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남성일 사장은 대고객 만족 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고 직원상호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실천함으로써 열린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주)대일산업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의 만족, 직원들의 만족, 이 두가지가 고루 이뤄질 때 진정한 고객만족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남 사장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권하고 있으며 개인의

DAE IL

작은 의견이 회사 발전의 버팀목이라는 판단 아래, 적극 반영하고 있다.

현재 남 사장은 대표이사 취임 이후 결제를 하는데 있어 어음발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업계에는 "(주)대일산업에 납품하는 것은 곧 결제 상에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납기·품질·결제 세 박자의 만족을 통한 고객신뢰 확보를 점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주)대일산업은 금번, 일본 THINK Lab사의 최신 레이저 제판 설비를 도입, 향상된 포장인쇄 디자인 및 그라비아 제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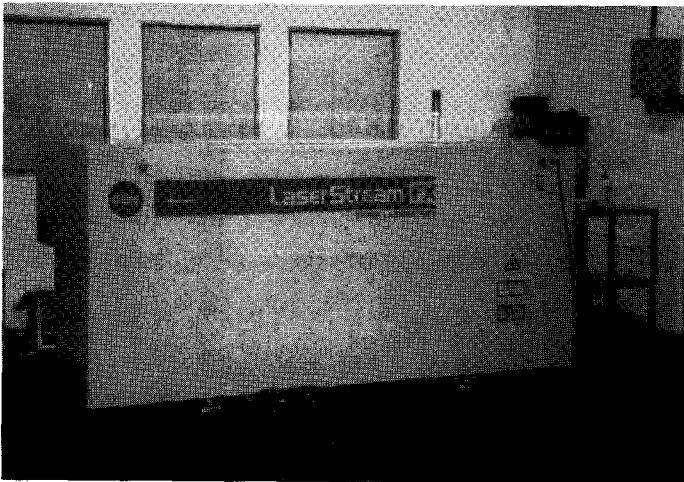
남성일 사장은 "최신 레이저 제판설비를 통해 패키지 디자인이 의도하는 미려한 포장인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이저 제판공정은 디지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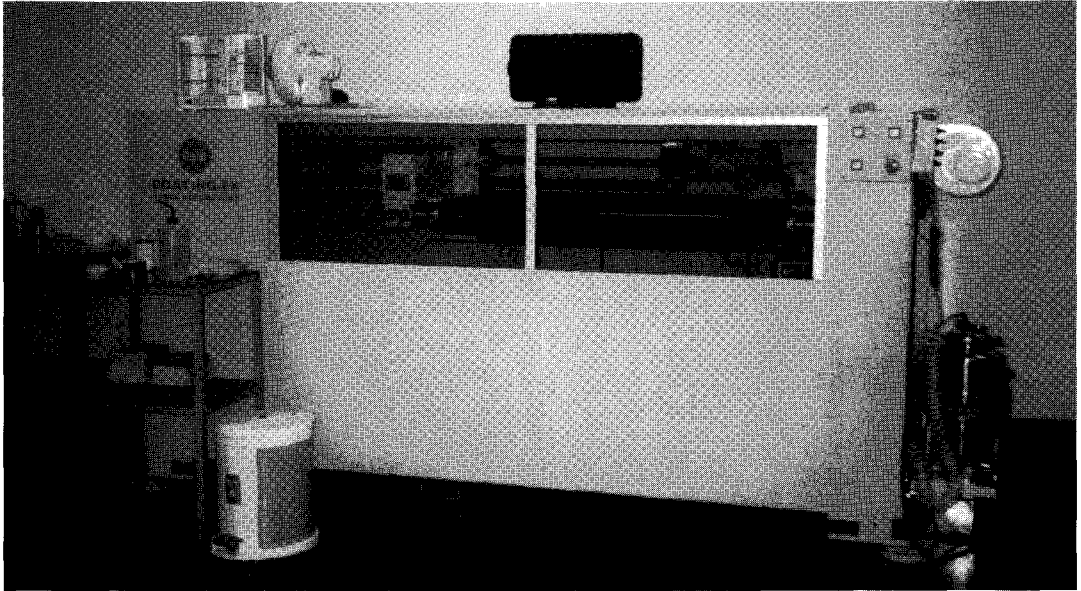
데이터를 제판하기 때문에 기존 부메랑 제판 공정에서 발생했던 미세한 먼지에 의한 제판 불량이나 연속 무늬의 이음부분 불일치 및 제판용 필름 수축에 의한 색채의 불일치, 펀트불량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그라비아 인쇄용 잉크가 허용하는 최소치의 망점과 다양한 망점을 구현하기 때문에 섬세한 패키지 인쇄가 가능하며 극소 망점을 구현하기 때문에 다양한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

남 사장은 "기존 국내 인쇄업체가 7~10% 이상 그라데이션을 인쇄할 수 있는데 반해 레이저판은 1% 그라데이션을 인쇄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레이저 제판은 망점 구조상 심도가 낮고 전이도가 높기 때문에 잉크 사용량을 30%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대일산업은 이번 레이



▲ 대일산업이 THINK LAB로 부터 도입한 레이저 제판설비



▲ 대일산업의 최신 레이저 제판 코팅설비

저 제판설비 도입을 통해 앞으로 생산, 물류, 품질부문의 일괄된 시스템개선과 설비, 인력개발에의 지속적인 투자, 고객과의 정확한 의사소통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라비아 인쇄의 고급화 추세에 따라 품질관리부의 중요성 및 책임이 막중해 지고 있는 것이 현실. (주)대일산업의 '품질관리팀'은 품질경쟁을 실천하고 있는 대일산업의 경영방침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다.

생산부서에 소속됐던 품질

관리팀은 1999년 ISO 9001 및 IQ NET 인증 획득을 계기로 독립된 부서로 발족, 생산성 향상 및 품질관리 유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품질관리 교육, 최종상품의 출고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 품질관리팀은 생산공정의 각 단계별 검사시스템 개선을 통해 고급 그라비아 인쇄가 요구하는 초정밀 제판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남성일 사장은 앞으로 최신 설비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생산

성을 높여 품질경쟁에서 선두로 자리매김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조건적으로 회사의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실천 가능한 범위 내에게 지속적으로 (주)대일산업을 이끌고 싶다는 남성일 사장.

꾸준한 매출신장을 통해 창립 23년간 적자 경영이 없었던 (주)대일산업이 앞으로도 디지털화 돼 가는 업계속에서 품질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제판산업을 이끌어 가길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